



KIA 김진우

## 김진우 WBC 대표팀 하차

오른쪽 팔꿈치 통증 호소... 추신수도 불참할 듯

대체선수 윤희상·손아섭 물망

내년 3월 열리는 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최종 승선 선수가 이번 주중 확정된다. 대표 선수 선발 권한을 지닌 류중일(삼성)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는 우완 투수 김진우(29·KIA)와 외야수 추신수(30·신시내티 레즈)의 대체 선수를 급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가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KBO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로 27일 그의 정밀검진 진단서를 받은 뒤 대체 선수를 확정할 참이다.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겨울 훈련 중인 추신수는 전화 통화로 출전 여부를 들을 계획이다.

KIA의 한 관계자는 "김진우가 11월 초와 12월 3일 두 차례 병원에서 검진했다"며 "오른쪽 팔꿈치 인대 통증으로 4주 진단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김진우는 현재 공도 던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27일 마지막 검진에서도 호전됐다는 진단을 받기 어려워 태극마크를 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팀 무단 이탈, 음주·폭행 등 잦은 사고로 임의탈퇴로 묶였다가 지난해 4년 만에 1군 무대에 돌아온 김진우는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아 10승5패, 평균자책점 2.90을 남기고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WBC 출전에 큰 열망을 나타냈으나 예상치 못한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다가 12월 신시내티로 이적한



신시내티 추신수



SK 윤희상

추신수는 최근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WBC에 불참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는 김인식 KBO 기술위원에게 이런 뜻을 던지지 않았고 조만간 KBO 실무자와 통화해 불참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추신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위해 정규리그 준비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금조 KBO 운영기획부장은 "두 선수를 대신할 선수를 이번 주중에 뽑아 내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는 SK 와이번스의 오른팔 윤희상, 삼성의 배영수 등이 꼽힌다.

고타자 손아섭(롯데)은 추신수의 빈 자리를 꿰찰 선수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최나연 영어도 잘하네”

골프전문방송서 실력 과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 여자오픈을 제패한 최나연(25·SK텔레콤)이 골프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영어실력을 과시해 화제다.

AP통신은 최나연이 골프전문 방송 골프 채널의 프로그램 '모닝 드라이브'에 출연하면서 예정에 없던 질문까지 '아름답게' 답변했다고 26일 전했다.

영어권 출신이 아닌 여자골프선수들은 공식 인터뷰에서 문자로 된 질문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TV카메라 앞에 서면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다.

최나연도 방송이 시작되기 전 LPGA 사무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스크립트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훌륭한 영어실력을 뽐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최나연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를 잘 못해 너무 불편했다"며 "심지어 스윙코치에게도 내 생각을 잘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LPGA 투어의 대스타인 박세리(35·KDB 금융그룹)의 조인을 받은 최나연은 1년 전부터 한국에 사는 캐나다인 그렉 모리스를 영어교사로 두고 매일 한시간씩 영어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회를 출전할 때는 인터넷 전화로 수업을 받았다.

최나연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 뒤로 마음이 편해졌고 골프도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골프 리더이고·존 허 기대 이상 활약 선수



리더이고 존 허

뉴질랜드 교포 리더이고(15)와 재미교포 존 허(22)가 2012년 골프계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평가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의 순위를 매겨 26일(한국시각) 발표했다. 리더이고는 8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오픈을 제패,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며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1위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따낸 제이슨 더프너(미국)가 선정됐다. PGA 투어 올해 신인왕을 받은 존 허는 마야코바 클래식 우승, 신인으로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리더이고는 최근 골프위크가 선정한 올해의 여자 아마추어 선수 부문 1위에도 뽑혔다. /연합뉴스

## ‘큰 손’ LA 다저스 2013 최대 관심

ESPN 메이저리그 전망

스토브리그에서 일약 ‘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행보가 내년 미국프로야구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채널 ESPN은 26일(한국시각)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심층 기사 코너인 ‘인사이드’에 2013년 메이저리그 관심거리 11가지를 정리했다.

기사를 쓴 칼럼니스트 버스터 울니는 관심거리 가운데 거액을 쏟아 부은 다저스의 운명을 첫머리에 올려놨다.

다저스는 올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

투수 최대어로 꼽힌 잭 그레이키(29)와 포수팅시스템을 거쳐 좌완 류현진(25)을 영입했다.

류현진의 소속팀 한화 이글스에 줘야 하는 이적료와 두 선수의 연봉을 합쳐 2억 달러(약 2148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여기에 시즌 중반 보스턴 레드삭스와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에드rian 곤살레스, 칼 크로퍼드, 조시 베헤 등 투타 중량급 선수에게 6000만 달러 가까이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벌써 다저스의 내년 성적이 월드시리즈 우승 또는 실패 중 하나일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 샤라포바 “한국 못 가 아쉬워요”

훈련 도중 목 부상... 이휘재·매길로이·보즈니아키 ‘빅매치’ 무산

‘한국 한 번 가기 어렵네.’

‘러시아 뉴티’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의 한국 방문 계획이 최근 7년 사이에 두 번이나 틀어졌다.

샤라포바는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Windows8 월드 빅매치’에 출전해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와 이벤트 경기를 벌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훈련 도중 목 관절에 갑작스럽 염증이 발견돼 25일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그 바람에 보즈니아키와 그의 남자 친구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의 한국 방문도 함께 백지화됐다.

샤라포바의 방문 경기 일정이 취소된 것은 사실 이번이 두 번째다. 2006년 1월1일

인천에서 열리기로 했던 샤라포바와 린지 대븐포트(미국)의 ‘슈퍼매치’도 대회 개막을 약 2주 앞두고 전격 취소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대븐포트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오지 못했다.

샤라포바로서는 2005년 비너스 윌리엄스와의 친선 경기 이후 두 차례 잡았던 방문 계획이 모두 갑자기 무산된 셈이다.

2004년 윈블던에서 17살 나이로 우승을 차지해 세계 테니스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샤라포바는 그해 코리아오픈에 출전해 역시 정상에 올라 한국과 좋은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윌리엄스와의 친선 경기 때도 입석 표도 구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인기를 끌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은 샤라포바지만 이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만하면 뭔가 일이 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월드 빅매치를 추진한 JS 매니지먼트 이진수 대표는 “손해가 막심하지만 그보다 선수와의 신의가 더 중요하다”며 “2013년에 방한하기로 구두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국내 테니스 저변이 이 정도라도 생긴 것은 2004년 샤라포바가 코리아오픈에 출전해 붐을 일으켜준 공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샤라포바의 상대로 정해졌다가 대회가 취소돼 한국에 오지 않게 된 보즈니아키는 약속된 초청료를 그대로 받는 ‘횡재’를 누리게 됐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수도권 4개·지방 6개 구단 체제 적합”

한체대 스포츠분석센터

프로야구 10구단 체제에서 구단별 이동거리를 줄여 공평한 경기력을 선보이려면 수도권 4개·지방 6개 구단 체제로 편성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체대 스포츠분석센터 전임 연구원인 김세형 박사는 26일 ‘10구단 체제에서 구단별 이동거리와 경기력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수도권에 4곳, 비수도권에 6개 구단이 들어서야 구단별 이동거리 격차를 크게 줄여 공정한 경기력을 선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수원을 연고로 한 KT와

전라북도 일원을 홈으로 한 부영그룹이 10구단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전북·부영 쪽에 다소 유리한 결과다.

김 박사는 2015년 10개 구단이 출범한다고 보고 1군 리그의 총 경기 숫자를 팀당 162경기로 설정해 구단별 이동거리를 계산했다.

거리 계산방식은 홈구장을 출발해 원정구장에 도착, 3연전을 치른 후 홈구장으로 돌아오는 거리만으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해마다 각 구단의 요청을 받아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직결되는 요인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맞이 Special

# 신양고객감사 특별상설 뷔페

일시 2012.12.31/새해 1.1 장소 호텔 1층, 스카이라운지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062)221-4101~3  
062)228-8000

특별상설뷔페요금

성인 ₩30,000  
아동 ₩20,000 (부가세 별도)

신양스페셜서비스

점심 와인 한잔  
저녁 미니케익 제공